

편리한 물류가 일상이 되고, 물류산업의 도약을 위한 5개년 계획 세운다

-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('23~'27) 확정
-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, 내륙물류기지 재정비 방안 마련

- 국토교통부(장관 박상우)는 물류산업이 국내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, 보다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「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('23~'27)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.
 - 동 종합계획은 「물류시설법」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, 그간 전문기관(한국교통연구원) 연구, 물류업계·유관기관 의견수렴, 관계부처 협의,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.
- 「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('23~'27)」은 “편리한 일상과 신산업으로 도약을 위한 첨단 물류 인프라 구축”을 비전으로 '27년까지 물류산업 매출액 200조원, 일자리 90만개, 부가가치 비중 46%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, 6대 추진 전략을 마련하였다.
 - 아울러, 생활물류 급증에 대응하고 빠른 배송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'27년까지 주문배송시설을 200개 이상 확충하고,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내륙물류기지의 재정비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, 미래 교통수단과 연계한 물류시설 개발방향을 제시하는 등 7대 핵심과제도 포함하였다.
- 주요 추진 전략 및 과제는 다음과 같다.

[전략 1] 생활밀착형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

- 주거지역으로 생필품을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(MFC)*을 도심 곳곳에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,
 - * (주문배송시설) 주문 수요를 예측하여 소형·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물류창고

- 도로·철도 유희부지(고가하부, 휴게소, 차량기지 등)를 활용하여 생활물류 시설 설치를 확대한다.
- 아울러, 공공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차장 부지, 주민센터 등에 물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공공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확대할 계획이다.

[전략 2] 노후화된 기존 물류시설 재정비·개선

- 운영기간이 도래하는 의왕ICD('26)·군포IFT('28)*의 기능 강화 및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, 그 외 내륙물류기지 활성화 방안과 현실화된 물동량을 반영한 개발·운영방안을 마련한다. * ICD(Inland Container Depot, 내륙컨테이너기지), IFT(Integrated Freight Terminal 복합물류터미널)
- 낙후된 물류시설을 개선하여 주변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도시 첨단물류단지 개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 구조를 개편하고, 사업자 부담을 완화한다.
- 또한, 기존 노후화된 일반물류터미널·여객터미널 등을 활용하여 도심 물류시설을 복합화·고도화하여 주민친화시설로 재정비를 유도한다.

[전략 3]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

- 기업의 비용절감을 통한 서비스 확대와 택배비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바탕으로 소외지역 공동물류거점을 확대 설치하고,
 - 소외지역 물류서비스 운영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, 도서산간 지역의 경로당, 주민센터, 터미널 등 공공시설을 공동물류거점으로 활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도 도모할 계획이다.
- 급변하는 시장 여건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물류시설 공급이 가능하도록 물류시설 실수요 검증과 수요 산정체계를 개선한다.

[전략 4] 물류시설의 스마트화

-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, 도심 내 물류센터 확보가 어려운 중소·영세 물류기업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공유형 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한다.

- 연구개발(R&D)을 통해 생활물류 배송 전 과정을 친환경화·첨단화하고, 자율주행·도심항공교통(UAM)·드론 등 신교통 수단과 연계한 물류인프라 제공 방안도 검토한다.

[전략 5)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

- 집적물류시설 등에 화물차용 수소·전기 충전소 구축을 확대하고, 철도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해 장대화물열차·피기백 등 신기술을 적용한다.
- 실시간 위험물질운송 정보공유 체계 마련,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수립 등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여건도 마련한다.

[전략 6)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

- 공항·항만의 화물처리 시설을 인공지능(AI)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개선하고, 인천공항의 물동량 처리를 위해 제3물류단지를 조성한다.
 - 아울러, 공항·항만 등 물류인프라를 활용해 고부가가치 물류와 제조 활동을 촉진하도록 국제물류거점 인근 복합 개발 추진도 검토한다.
- 국토교통부 이윤상 교통물류실장은 “향후 5년간 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”라며, “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해 미래 역량을 확충하는 한편, 지역 간 격차 없는 보편적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, 공항만을 국제 물류 허브로 육성하는 등 물류 산업 전반에 걸친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지속 노력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- 「제4차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(’23~’27)」 전문은 12월 27일(수)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뉴스·소식의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	책임자	과 장	안진애 (044-201-4006)
	첨단물류과	담당자	사무관	김광수 (044-201-4013)
			주무관	이동우 (044-201-4008)



- 비전
- 목표
- 성과지표
- 전략 및 과제
- 핵심과제

“**편리한 일상**과 **신산업으로 도약**을 위한 **첨단물류 인프라 구축**”

물류서비스 제공 거점의 다양화 (물류시설 공급 확대) **물류서비스 효율화 및 공공성 확보** (물류시설 운영 개선)

물류산업 매출액 156조원 **○ 200조원** 물류산업 일자리 79만개 **○ 90만개** 물류산업 부가가치 비중 41% **○ 46%**

전략	추진과제	키워드
전략 1 도시 물류 인프라 확충	① 도시·인프라 개발과 연계한 미래형 물류시설 도입 ② 개발이 완료된 도시의 생활물류시설 및 생활·픽업형 조업공간 확보 ③ 도시내 유휴부지 및 공공부지에 생활물류시설 확충	New Infra
전략 2 기존 물류시설의 재정비·개선	① 내륙물류기지 재정비 ②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활성화 ③ 기존·노후 시설 재정비	Old Infra
전략 3 지역간 격차없는 물류서비스 기반 제공	① 도시간 등 물류소외지역의 물류거점 확보를 통한 물류망 연계 지원 ② 지역 연계형 물류단지 공급을 위한 실수요 검증 개선	Basic Life
전략 4 물류시설의 스마트화	① 물류기업 인증·지원 확대를 통한 스마트화 ② 물류 R&D 기반의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③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민간 협력의 공동물류시설 확대 ④ 자율주행, UAM, 드론 등 신교통 수단 연계 물류기반 조성	Tech/Digital
전략 5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물류체계 구축	① 친환경 물류체계 개발·지원 ② 철도물류 수송 부담률 제고 ③ 물류산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여건 마련	Eco/Safety
전략 6 국제물류허브 기반 조성	① 항공물류 인프라 확충 및 스마트 화물운영체계 구축 ② 스마트 항만 확산 및 기술개발 추진	Global Hub

- ☑ 핵심과제 ① : 빠른배송의 일상화를 위한 도시 내 신 물류시설 도입
- ☑ 핵심과제 ② : 도로·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생활물류 시설 확대
- ☑ 핵심과제 ③ : 노후화된 내륙물류기지 재정비
- ☑ 핵심과제 ④ :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 현실화
- ☑ 핵심과제 ⑤ : 신 교통 수단과 연계 가능한 물류인프라 조성
- ☑ 핵심과제 ⑥ : 미래 물류시스템 혁신을 위한 지하 물류 체계 구축
- ☑ 핵심과제 ⑦ : 물류시설 첨단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물류센터 확산